

명문대 진학을 높이려 교장·교사가 성적·생기부 조작

광주의 한 사립여고에서 명문대 진학을 높이려고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생활 기록부를 마음대로 수정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밝혀졌다. 이 학교는 1학년때 성적 우수학생 10여명을 선발해 과외·동아리 활동 등 수시 맞춤형 관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그룹에 속하지 못한 학생들에겐 불가피하게 상대적 불이익이 돌아가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학생들의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불법으로 조작한 혐의(업무방해·공전자기록위조)로 광주 모 사립 여자고등학교 교장 A씨와 교사 B씨를 입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교비를 횡령한 교감 C씨와 교장의 지시로 편성된 심화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과외비를 받아 챙긴 교사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학교에서만 교장·교감을 비롯해 무려 13명이 입건된 것이다.

교장 A씨와 학년부장인 교사 B씨는 현재 2학년인 학생 12명, 3학년인 학생 13명 등 총 25명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나이스



학년부장이 부당 접속 1명 성적 고치고 25명 생기부 수정 심화반 운영 과외에 교감은 교비 횡령...광주경찰 13명 입건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229차례 무단 접속해 학생 25명의 생활기록부에서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36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수정했다. 생활기록부 수정 권한은 담임과 교과담당 교사에게만 있는데 학년부장이 부당하게 접속해 수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학생들을 교무실 등지로 부른 뒤 입력할 내용을 당사자에게 묻거나 논의한 뒤 ‘맞춤형 생활기록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장 A씨는 서울대 등 명문대 진학 학생 수를 늘려 자신과 학교의 명예를 높이려고 교사들과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 등은 대입 수시전형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으면서도 교사들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큰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다.

생활기록부 조작 대상이 된 학생들은 입학 당시 성적이 우수했던 학생들이다. 교장 A씨 등은 입학 때부터 이들의 명단을 만든 뒤 명문대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시킬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교사 B씨는 성적 조작 혐의도 받고 있다. 자신이 관리하던 한 학생의 수학 성적의 등급이 떨어지자 2차례에 걸쳐 나이스 성적과 답안지 내용을 조작해 1등급으로 올렸다. 이렇게 성적을 조작해준 학생의 학부모에게 개인적으로 2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B씨 등 이 학교 교사 11명은 심화반을 편성·운영하면서 참여 학생들의 학부모에게 과외비로 모두 2500만원을 받았다. 특히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활동, 동아리 활동, 학부모활동 등을 위한 교육부와 광주시교육청의 목적사업비 9000만원을 용도와 달리 심화반 자습 감동비와 과외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교감 C씨는 교육력제고 사업비 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현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성적우수학생 위주의 교육, 심화반 편성, 과외 교습, 금품 거래 등 학벌 중심의 성적 지상주의 병폐가 종합적으로 드러났다”며 “다른 사립학교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하필 수시모집 앞두고...광주 학생들 이미지 타격 ‘발동동’

“다음 주부터 수시모집인데 하필 이때...”

광주경찰의 ‘사립여고 성적 조작’ 수사 발표 시점을 놓고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12일부터 전국 197개 4년제 대학의 수시모집이 시작되는데 입시에 영향을 미칠 민감한 수사 결과를 이때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3년간의 노력이 물거품되지 않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특히 성적 조작을 한 학교 뿐만 아니라 광

주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광주의 한 사립여고 성적 조작 사건과 관련, 교장·교감·교사 등 13명을 입건한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 발표 다음날부터 전문대학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민감한 시기였다. 전국 4년제 197개 대학의 수시모집은 12일부터 21일까지, 137개 전문대학 수시모집 8일부터 29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4년제 대학

(70.5%), 전문대(84.7%)의 경우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에 달해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광주 교육계는 이 때문에 경찰 수사 결과와 지역 대다수 수험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왜 하필 이때나...”며 발을 동동 구르는 수험생들이 있는가하면, 학부모와 교사들은 수도권 대학들이 특정 여고가 아닌, 광주 모든 고교의 성적과 학생부에 대한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송치한 뒤 발표한 것이라고 하지만 주요 사건을 수사한 뒤 발표 시점을 놓고 저울질해온 지금까지의 관례를 감안하면 “수십만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여고의 한 학부모는 “딸이 울면서 전화했다”면서 “올해 대학 입시는 망했다. 해도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문제는 이 사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소 3년은 불이익이 뒤따를 것이라는 시각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잡 페스티벌 청년들 발길

광주지역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7일 전남대 컨벤션을 일원에서 열린 ‘청년 취업 잡(job) 페스티벌’에서 참여 기업들의 채용정보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대기업 8곳과 지역 우수 중소기업 14곳이 참여했다. /최현배기자 choi@

“남도학숙 선발 기준 개선해야”

광주 시민단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제한 안돼” 지적

서울권 대학에 진학한 광주·전남 대학생이 이용하는 남도학숙 선발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하 광주시민모임)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남도학숙 입사 선발 기준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출신자로 국한되는 등 성적이 주요한 선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거주 편의를 위해 만든 남도학숙이 특정 학생들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학력 차별의 온상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남도학숙 선발 조건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신입생·재학생 또는 대학원생

이며 재학생은 평균평점 B학점 이상, 신입생은 일정한 수능 등급이 되어야만 입사할 수 있다. 성적은 입사 뿐 아니라 퇴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성적을 유지해야 한다.

광주시민모임은 “추가로 498억원을 들여 제 2남도학숙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히 선발기준을 시정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대방동에 있는 남도학숙은 1994년에 건립됐으며 850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은평구에 제2남도학숙 건립이 추진중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초등 여학생에 아동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 징역형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아동(야한 동영상)을 보여준 통학버스 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대 판사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회봉

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원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B(당시 11세)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검찰이 광주 모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7일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문한)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가 지역구인 A의원 사무실과 회계책임자 주거지 등 총 4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압수수색은 4시간여에 걸쳐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8월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A의원의 회계책임자 B씨와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한데 따른 것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민원실서 하루 때우던 50대, 현금 1200만원 훔쳐 경찰서로



○...특별한 직업 없이 시원하고 쾌적한 구청 민원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을 반복해온 50대 남성이 민원인의 가방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쳤다가 경찰서행.

○...7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53)씨는 지난 6일 오전 10시5분경 광주시 북구청 민원실에서 박모(45)씨가 자

리를 비운 사이 박씨의 가방에서 현금 1200만원을 훔쳐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올 여름부터 북구청 민원실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는 생활을 계속했는데, 경찰은 “이씨가 민원실에서 쉬다가 열린 가방 사이로 보인 현금을 보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 /김정민기자 kki@

구레, 호텔급 모텔, 직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등 적합
- 시세 / 감평가 - 15억
- 용 7억3천만원 있음, 법인체 인수 가능
- 매매 - 9억 3천만원 (조정가)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익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무안, 무인텔 부지

- 무안군(읍) 성동리 621-1번지
- 대지 530평, 백악관 모텔 옆
- 무인텔 허가 득 조건
- 시세 12억
- 매매 11억 2천만원

신안군, 증도 임야

- 증도면 증동리 산 113번지
- 1764평 (3529평 중 1/2)
- 도로접, 위치좋은
- 시세 1억 2천만원
- 매매 - 6200만원
- 투자가치 최고 /

나주, 세지면 임야

- 나주시 세지면 내정리 산 12-4번지
- 89평, 2차선 간선도로에 접함
- 현재 밭으로 이용 중, 세지 복초 인근
- 시세 1천만원
- 매매 - 330만원
- 급매 (9월 30일까지)

싸고 좋은 물건, 회사 사정상 매매합니다! 회사직거래 / H.010-3605-5000

장성, 전원주택지

- 동화면 남산리 1073-7번지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코너
- 36세대 중 20세대 거주 중
- 시세 1억, 주변환경 깨끗
- 매매 - 7200만원

나주, 근린주택

- 공산면 금곡리 877-2번지
- 1층, 대지 42평, 건물 43평
- 농협건너편, 2차 대로에 접함
- 시세 8천만원, 위치좋은
- 매매 - 5200만원

장성, 서삼면 농지

- 서삼면 장산리 691-1번지
- 333평, 코너, 교통최고 요지
- 생산관리지역, 축령산 5분
- 시세 1억 3천만원, 모돈업종 개발가능
- 매매 - 9900만원
- 전원주택, 펜션 최고 장소